

통제와 치료, 그리고 기획된 공간*

— 만주국 시기 한·중 작가 소설 속 공간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정겨울**

【목 차】

1. 들어가며: 식민 이데올로기와 건민(健民)의 양성
2. 전염병과 아편의 시대
3. '신생'과 '갱생'의 공간
 - 1) 격리소: 균열하는 민족협화의 꿈
 - 2) 보도소: 은폐된 왕도낙토의 허상
4. 나오며

【초록】

만주국 시기 일본은 페스트와 아편중독이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격리소와 집단부락과 같은 공간을 설계한다. 이러한 공간은 표면적으로는 대다수 시민의 안전보장과 전염병 확산 방지, 중독자에 대한 치료 등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기획 의도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폐쇄성과 폭력성을 다분히 드러내는 곳이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만주국 시기 발생했던 전염병, 아편중독과 같은 중대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의 민족적 위치가 어떻게 재편성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특히 구덩(古丁)과 현경준의 작품에 등장하는 '격리소'와 '보도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그 속에 내재한 제국주의 식민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모순점에 대해 고찰한다.

【키워드】 만주국문학, 구덩, 현경준, 신생, 유맹, 격리소, 집단부락, 보도소, 민족협화, 왕도낙토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2A03038613).

** 건국대학교 아시아문화정치연구소 연구원 (dongtian1231@gmail.com)

1. 들어가며: 식민 이데올로기와 건민(健民)의 양성

만주국 시기 한·중 작가들의 만주 체험과 문학 서사는 특수한 시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민족이 겪은 불행과 참예한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무력으로 만주 지역을 점령한 후 세웠던 만주국은 국제사회에서도 하나의 독립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불완전한 국가였으며 일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국 건설의 실험장이었던 공간이었다. 그렇기에 만주국은 국가 운영 논리나 구조에 있어서도 기형적 성격을 다분히 드러내고 있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은 예로부터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혼재하는 공간이었으며 만주국 시기에는 일본인과 조선인이 유입이 급격하게 늘어나며 큰 인구변화를 경험하기도 했다.¹⁾ 일본은 당시 ‘오족협화(五族協和)’²⁾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다양한 민족 간의 화합을 추구했지만 실제로 각기 다른 민족 간에는 수많은 모순과 갈등의 불씨가 잠재해있었다. 특히 이러한 갈등은 각 민족 간의 이익 관계가 얽혀있거나 생존 문제와 직결된 위기 상황에서 더욱 첨예하게 표출되었다. 일례로 1931년 발생했던 ‘만보산사건(萬寶山事件)’에서도 볼 수 있듯이 중국인과 조선인들은 일본의 무력 개입과 해당 지역의 이권 획득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드러내었고, 이로 인해 조선에서는 ‘화교배척사건’이 발생하는 등 민족 간의 크고 작은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당시 만주국에서는 국가 존속과 식민지배 용이를 위해 민족 간의 화합을 계속해서 제창했지만 이는 실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는 무엇보다 만주국의 태생 자체가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시작된 것으로부터 기인한다. 더군다나 만주국 사회 내부에서는 식민 지배 권력을 중심으로 하는 수직적 위계질서가 형성되었고, 그 속에서 또 다시 민족 간, 계급 간의 차별과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었다. 특히 만주국에서는 일본인을 제외한 민족들에게 식민 제국주의

1) 1932-1942년 사이 만주국의 인구는 2,960만여 명에서 4,446만여 명으로 1.5배 증가했다. 이 시기 중국인은 2,890만여 명에서 4,175만여 명으로 44.5%가 증가했고, 조선인은 67만여 명에서 154만여 명으로 2.3배가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1933-1942년 사이 3만 8천여 명에서 109만명으로 28.4배나 증가했다. 윤휘탁 지음, 『滿州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pp.91-92.

2) ‘오족협화(五族協和)’는 만주국의 건국정신이었던 ‘왕도낙토론(王道樂土論)’의 사회 실천적 차원에서 제기된 국가 통합 논리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시 일본이 제창한 ‘오족협화론’은 단순히 민족 간의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민족을 중심으로 한 주요 다섯 민족(만주족, 한족, 몽골족, 조선족, 일본족)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안지나,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제18집, 만주학회, 2014, p.36.

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과 일본 문화로의 동화가 강요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반발과 갈등이 발생했다.

일찍이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만주국 사회 내에서도 서구 사회에 대척할 수 있는 가장 큰 역량으로서 ‘문명화’를 주장하며 해당 지역에서 각종 근대화·산업화를 진행하였다. 일본은 철도, 건설,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근대화를 추진했고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국민, 궁극적으로는 국가에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제국의 ‘건민(健民)’³⁾들을 양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당시 만주국의 “식민권력은 만주국인들이 전선의 군인, 산업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캠페인(체육주간, 건강주간, 건민운동 등)을 적극 전개”⁴⁾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만주국 정부의 입장에서 제국의 건민 양성과 식민 지배 권력 확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대중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수적이었다.⁵⁾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감시는 전염병과 아편중독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만주 지역은 예로부터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던 지역이었다. 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와 같은 악성 전염병을 비롯해 한센병, 결핵, 성병과 같은 만성전염병은 수시로 사람들의 생명과 만주국의 사회 질서를 위협했다. 그리하여 이 시기 일본은 사회 질서 통제와 건민 양성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페스트는 만주국 건국 이전부터 거의 매년 만주 지역에서 발생했던 질병으로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당시 만주국 정부는 페스트를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환자 발생 지역에 대한 소독과 봉쇄, 격리 등을 진행했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페스트 환자와 접촉자들을

3) “식민권력에 의한 신체 통제는 ‘금지와 퇴치’, ‘장려와 조성’이라는 양가적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식민권력은 식민지의 인적 자원 혹은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확보, 동원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정비하거나 확충하고 아울러 관련 법령을 제정해 나갔다. 이러한 식민권력 주도의 노무동원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나아가 목표로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원의 대상인 민중의 ‘신체’(몸)의 관리와 통제가 전제되어야 했다.” 전경선, 「전시 만주국 체력 동원과 健民의 창출」, 『만주연구』, 제30집, 만주학회, 2020, p.111.

4) 전경선, 「전시 만주국 체력 동원과 健民의 창출」, 『만주연구』, 제30호, 2020, 만주학회, p.111.

5) 프랜싯트 두아라는 푸코가 주장한 ‘근대성’에 대한 논의를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푸코는 신민(臣民)들을 형성하는 규율적 권력이 근대사회의 특징이라 여긴다. 권력을 신민을 통해, 그리고 그 표면에서 운용되며, 형무소와 군대에서 생기는 규율적 모델의 연장을 통해서와 마찬가지로, 자기지식(self-knowledge)의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신민을 만든다. 이런 틀 안에서, 통치성은 생물권력을 확장, 통제하기 위해 인구의 순찰, 감시, 통제, 개입을 맡는다.……근대성을 특징짓는 것은 ‘사회의 국가화’(etatisation of society)라기보다는 ‘국가의 통치성화’라고 주장한다.” 프랜싯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p.66.

따로 관리하는 격리소 시설의 운영이었다. 만주국 정부는 페스트 환자 발생 지역 거주민을 비롯해 접촉자는 일률적으로 격리소로 이송하였고, 일정 기간 동안 격리소에 수용하는 등 강도 높은 페스트 방역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전염병 외에도 만주국 사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아편이었다. 본래 만주 지역에서 아편의 매매는 정부의 중요한 경제 수입원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무분별한 아편흡연과 밀수, 흡연자의 중독문제가 심각해지며 이는 만주국 사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된다.⁶⁾ 이처럼 늘어나는 중독자들에 대한 관리와 불법적 아편매매의 억제를 위해 만주국 정부는 중독자들에 대한 갱생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그리하여 만주국 내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설한 집단부락(集團部落)에 중독자들을 단체로 수용하여 이들에 대한 치료와 생활 지원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부락은 외적으로는 아편중독자를 비롯한 밀수업자, 사기꾼 등과 같은 부정업자(不正業者)들의 재화와 갱생을 돕는 공동체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감옥과 같은 엄격한 관리와 통제 속에서 이들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 자행되는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주목해야 할 것은 페스트와 아편중독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만주국 정부는 격리소와 집단부락과 같은 특수한 공간을 기획, 설계했다는 점이다. 환언하면 만주국 정부는 이러한 공간을 통해 대중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감시를 실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장과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만주국 사회 저변에 침투하고 있으며 이것이 각기 다른 민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만주국 시기 발생했던 전염병, 아편중독과 같은 중대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조선인들의 민족적 위치가 어떻게 재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주국의 건국이념이자 정신인 ‘오족협화’와 ‘왕도낙토(王道樂土)’⁷⁾ 사상에 어떠한 균열이

6) 만주국 내 아편중독자의 발생과 증가현상에 관해서는 중국 학계 내에서도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만주국 내 아편중독자의 발생과 증가 원인이 일본의 중국인에 대한 중독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이후 만주국 정부가 금연정책을 실시했던 것도 그저 국제사회의 압력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이었다고 평가한다.

7) 본래 ‘왕도주의(王道主義)’는 오랫동안 중국의 농촌사회와 민중을 연구한 일본인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시라키(橘樸)에 의해 제시되었다. 당시 다치바나는 민족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인들에게 만주국 체제에 대한 복종과 협력의 대가로 맹자의 정치사상인 ‘왕도’를 제시한다. 다치바나는 이를 토대로 소외된 농촌사회를 포섭하고자 했지만 그가 주장하는 왕도는 자신을 매개로 재해석된 왕도였으며 완전한 민족자치 실현을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대중적 기반을 형성하기 어려웠다. 다치바나가 주장한 왕도주의는 국가 통치기구에서 배제되었지만 결국 만주국의 통치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왕도’를 표방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특히 ‘왕도낙토’는 ‘인애’와 ‘협화’를 강조하며 천황에 대한 충성과 민족협화를 주장한다. 환언하면, ‘왕도주의’가 전통적 농

점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구덩(古丁)의 『신생(新生)』과 현경준의 『유맹(流氓)』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해당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격리소’와 ‘집단부락(보도소: 輔導所)’이라는 공간은 일본 정부가 설계한, 즉 특정한 목적을 위해 철저히 기획된 공간으로서 식민 권력은 이를 매개체로 중국과 조선 민족에 대한 계몽, 통제, 치료, 갇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식민 권력의 통제와 감시를 받던 피식민지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의 공간들은 이들의 민족적 정체성과 개인의 주체성을 말살하고,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억압된 공간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착안해 본고에서는 제국이 기획한 격리소와 집단부락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상징성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를 통해 드러나는 제국주의 식민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모순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2. 전염병과 아편의 시대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적극적으로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며 빠른 근대화를 이루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세기 말부터는 동아시아 지역 식민지 개척에 속도를 가하기 시작한다. 주지하다시피 동아시아 사회에서의 ‘근대’로의 이행은 전쟁과 식민지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시기 일본은 타이완(臺灣)을 비롯해 조선, 중국 대륙 등지로 자신들의 세력을 빠르게 확장해 나갔으며 1931년에는 무력을 동원하여 중국 동북 지역을 점령, 1932년 정식으로 만주국 성립을 선포한다. 중국의 동북 지역, 곧 만주 지역은 동아시아 정세에 있어 오랜 시간 동안 매우 중요한 지리적·전략적 위치를 차지하던 곳이었다. 당시 일본에게 있어 만주 지역은 대륙으로 진입하는 관문인 동시에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전선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의 풍부한 광물과 자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내지(内地)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고 전쟁 물자 공급 동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에 일본의 입장에서 만주 지역은 반드시 차지해야만 하는 전략적 기지이기도 했다.

업사회에 기반을 둔 고대 중국의 정치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왕도낙토는 왕도가 실현된 유토피아를 의미한다. 안지나,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제18집, 만주학회, 2014, pp.42-47; 김영문, 「일제 침략 시기 만주 지역 중국 친일문학의 논리구조 - 왕도낙토론(王道樂土論)과 오족협화론(五族協和論)을 중심으로(1931-1945)」, 『중국현대문학』, 제50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9, p.196.

비록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대외적으로 독립 국가를 표방했던 만주국에서 일본은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강력한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근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만주국 근대화의 실행은 철도, 건축, 교육, 의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서구의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적 위생사업과 공공의료 사업의 도입과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것은 당시 만주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각종 전염병과 질병에 대한 통제를 비롯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가진 만주국 국민—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력, 노동력, 군사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자원인 ‘건민’—의 양성과도 연관성이 있었다. 실제로 만주국에서 근대적 위생사업의 도입과 전염병에 대한 방역과 통제는 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사안임이 분명했다.

본래 만주 지역에서는 각종 전염병이 자주 발생했는데 그중에서도 페스트는 거의 매년 발생했던 고질적인 전염병 중 하나였다. 일례로 만주에서는 1910-11년대 발생했던 ‘제1차 만주 페스트’를 비롯해 ‘제2차 만주 페스트(1920-1921)’, ‘제3차 만주 페스트(1933)’가 발생해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940년대에 이르러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만주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페스트 방역정책을 실행한다. 만주국 초기에 유행했던 페스트는 선(腺)페스트로 이는 쥐를 매개로 하여 세균을 옮기는 질병이었다. 그리하여 선페스트에 대한 대처로 만주국 전 지역에서는 쥐잡기운동이 장려되었고 이러한 활동은 1940년대에도 지속되었다.⁸⁾ 하지만 1920년대부터 선페스트와 달리 사람의 호흡기나 접촉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폐(肺)페스트가 발견되면서 페스트 통제를 위해서는 더욱 촘촘하고 강력한 방역정책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⁹⁾

8) 본래 쥐잡기운동은 선페스트 방지 정책의 주요 일환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1910년 이후 폐페스트가 발생한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여기에는 쥐잡기운동이 점령지주민과 식민주민을 훈육하고 계도하는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페스트에 대한 방역 정책은 1920년대 이르러 제2차 만주 폐페스트 유행 이후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쥐잡기운동과 설치류에 대한 매입 및 소각과 같은 방역정책은 만주국 성립 이후인 1930-40년대에 들어서도 주요 방역정책 중 하나로 여겨졌다. 신규환, 「제국의 과학과 동아시아 정치: 1910-11년 만주 페스트의 유행과 방역법규의 제정」, 『동방학지』, 제167집, 국학연구원, 2014, p.214; 전경선, 「1933年 滿州國 페스트의 流行과 防疫活動」, 『중국사연구』, 제117집, 중국사학회, 2018, p.282.

9) 1910년대 만주 지역 방역 책임자였던 우렌더(伍連德)는 영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젊은 청년 의사였다. 우렌더는 1910년 12월 27일 하얼빈 푸자덴(傅家甸)에서 일본인 여성의 사체를 부검 후 폐조직에서 페스트 감염을 확인, 당시 만주 지역에서 유행하던 페스트가 기존의 선페스트와 다른 폐페스트임을 발견했다. 그는 이에 대한 방역 정책으로 쥐잡기운동보다는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해야 함을 주장했지만 주변에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고 결국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에야 그의 의견이 사실이였음이 밝혀졌다. 신규환, 「제국의 과학과 동아시아 정치: 1910-11년 만주 페스트의 유행과 방역법규의 제정」, 『동방학지』, 제167집, 국학연구원, 2014, pp.202-203.

페스트 통제를 위해 만주국 정부는 쥐잡기운동을 비롯해 공간 구획을 새롭게 정비하였고, 행정법규의 개편, 격리시설 설립, 대중에 대한 계몽 사업 등 다방면에 걸친 방역활동을 전개한다.¹⁰⁾ 그중에서도 페스트 환자에 대한 감시와 이동의 통제가 중요했는데 무엇보다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던 것은 바로 의심환자나 접촉자에 대한 ‘격리’였다. 이에 대한 조치로 만주국 정부는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면 그 주변 구역을 철저히 봉쇄하였고, 소독 및 소각을 비롯해 인근 거주자들을 모아 격리소에 수용하는 강력한 방역정책을 실행했다. 실제로 격리소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와 같은 시설 설립과 운용은 만주국 내에서 단순히 페스트 방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만주국 내에서 페스트와 같은 전염병 통제와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군대였다.¹¹⁾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광범위한 조직력, 대규모의 인력을 바탕으로 만주국 내 각 구역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더욱 수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전염병에 대한 방역활동 과정에서 있어 정부의 대중에 대한 통제와 규율이 한층 더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게다가 격리소는 본래 전염병 통제를 위해 환자들의 격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공간이었지만 대중에 대한 국가의 관리와 통제라는 명목 하에 때로는 도시 부랑자(遊民)들을 강제로 수용하고 감시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었다.¹²⁾ 무엇보다 격리소는 외부세계와 철저하게 차단된 공간으로 수용자들은 인신의 자유를 억압당한 채 격리소 내부의 엄격한 지침에 따라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으며 혹시라도 페스트에 감염되어 목숨을 잃지 않을까时时刻刻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야만 했다.

이와 같이 심각한 전염병인 페스트와 함께 만주국 사회를 위협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아편중독이었다. 사실상 만주 지역에서 아편문제는 만주국 성립 이전부터 상당히 중대한 사회적 이슈였다. 아편이 당시 중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바로 재원의 확보와 관련이 있었다. 불법적 아편매매나 밀수, 중독자의 증가는 당연히 사회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했지만 정부에서 아편에 대한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행하지 못했던 주요 원인은 바로 이를 통해 걷어 들이는 세금과 수입원에 있었다. 일찍이 1907년 중국과 영국이 <중영금연조약(中英禁煙條約)>¹³⁾을 체결하며 중

10) 張宏藝, 「殖民與疾病——偽滿洲國文學中的“疾病敘事”」,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p.53.

11) 李磊·班秀麗·聶海洋, 「偽滿時期衛生防疫研究」, 『醫學史研究』, 제37권, 2016, p.90.

12) 도시 부랑자를 체포하는 일은 우선적으로 형사사건 발생을 줄이기 위한 치안 목적으로 시행되었는데 강제로 체포, 감금한 부랑자들을 당시 각 군부대 소속 세균 실험실로 보내기도 했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日]島村三郎等 著, 公文逸 編, 『我們在滿洲做了什麼: 侵華日本戰犯懺悔錄』, 群眾出版社, 2016, pp.271-276.

13) “당시 중국내에서는 청일전쟁에서의 패배와 光緒新政의 실패로 지식층 사이에 亡國危機論이 대두되었고 또한 국제적으로 영국의 아편무역에 비난여론이 가중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영

국 사회 내부에서는 한동안 금연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만주 지역의 경우 군벌의 등장과 함께 군비확충을 위한 아편매매가 성행하며 또 다시 아편흡연이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만주국 성립 직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징적인 것은 일본의 경우 만주 지역을 점령한 이후 타이완이나 관동주(關東州) 등지에서 실행했던 점금주의(漸禁主義)¹⁴⁾에 근거한 아편정책을 추진하였고, 중독자에 대한 아편전매 제도를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점금주의 정책은 아편흡연에 대한 엄금정책(嚴禁政策)으로 인해 동원되어야 할 경비와 인원을 축소하고 아편 판매를 재원으로 삼고 있는 비적(匪賊, 항일집단까지 포함) 집단에 대한 견제라는 목적성도 지니고 있었다. 더불어 아편전매 제도는 아편 유통에 대한 정부의 독점적 권한을 보장하였기에 만주국 정부는 이를 토대로 상당한 양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¹⁵⁾

그러나 1937년에 이르자 일본은 만주국 내 아편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잠식시키기 위해 기존의 점금주의에서 단금주의(斷禁主義)정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다. 일본은 동년 10월에 <단금아편방책요강(斷禁阿片方策要綱)>(이하 요강)을 발표하며 1938년부터 10년 이내에 만주국 내에서의 아편중독을 근절시킬 것을 공포한다. 요강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금연교육과 사상교육의 강조, 아편흡식 허가제 강화, 25세 이하 청년에 대한 흡연 허가증 발급금지, 중독자 등록제 등이 제시되고 있다.¹⁶⁾ 특히 만주국에서는 불어나는 아편중독자 문제 해결을 위해 흡연등록제와 같은 정책을 펼치며 제한적 아편판매를 용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실제로 중독자를 통제하는데 있어서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¹⁷⁾ 그러기에 일본이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이들이 그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고자 취한 조치라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당시 늘어나는 아편 중독자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건민의 양성을 목표로 하는 만주국 정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은 분명했다. 특히 아편중독자 등록제와 같은 제도는 기본

국은 아편무역이 자국의 국익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조와 禁煙條約을 체결하여 10년 내에 중국에 대한 아편수출을 완전히 중지할 것을 결의하였다.” 박강, 「滿州國의 阿片政策」, 『中國學論叢』, 제8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94, pp.92-93.

14) 점금주의는 일반인에게는 아편의 흡연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기존의 중독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료의 목적으로 정부가 아편을 전매 공급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15) 박강, 「滿州國의 阿片政策」, 『中國學論叢』, 제8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94, pp.96-98.

16) 박강, 「滿州國 阿片斷禁政策의 再檢討」, 『역사와 세계(釜大史學)』, 제23집, 효원사학회, 1999, p.343-345.

17) 1933-1937년 사이 만주국 내에서 아편중독자 등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인 수치는 1933년에 56,804명, 1934년 115,447명, 1935년 217,060명, 1936년 491,965명, 1937년 811,00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1933년과 1937년의 수치를 비교하면 5년 사이에 무려 14배 이상이 증가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劉全順, 「偽滿鴉片斷禁政策評析」, 『長春師範學院學報』, 제27권 제6기, 2008, p.52에서 인용한 표내용 참고.

적으로 중독자에 대한 제한적 아편판매와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중독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통해 그들에 대한 감시와 치료를 병행하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당시 만주국에서는 아편중독자들에 대한 치료의 일환으로 집단부락을 조성하여 중독자들을 수용하였고, 공동체 생활과 사상교육을 통해 이들이 아편중독에서 벗어나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일종의 갱생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집단부락은 단순히 아편중독자들만을 위한 치료시설은 아니었다. 본래 집단부락은 만주국 성립 초기에는 항일무장 세력과 일반 민중들의 결연을 단절시키고 편벽한 농촌 지역에서 노화(奴化)교육 등을 진행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었다. 특히 간도(間島)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부락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일본은 무력을 동원해 원주민들을 내쫓기도 했으며 그로 인해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했다.¹⁸⁾ 즉, 만주국 내 집단부락의 조성은 치안유지라는 표면적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구의 설치를 통해 만주국 내 항일세력 확장을 저지하려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¹⁹⁾ 당시 집단부락에는 아편중독자를 비롯한 밀수업자, 사기꾼, 상습도박꾼과 같은 범죄자들이 함께 수용되었는데 만주국 정부는 공동생활과 강도 높은 육체노동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교화를 도모하였다. 이들 대다수는 소위 ‘사회적 낙오자’로 분류된 자들로 만주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회유와 사상 교육을 통해 건민의 양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감시를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특징적인 것은 격리소 역시 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공간이었지만 집단부락의 경우 그 인위적 성격이 더욱 두드러지는 공간이었다. 상술한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집단부락의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폭력성을 비롯해 이곳에서는 교도소와 같은 엄격한 감시와 억압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무엇보다 집단부락이 아편중독자 치료를 위해 형성된 경우도 있었지만 치안 유지를 핑계로 사회 불량자나 범죄자들은 수용하는 경우도 다수였기에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집단부락은 사회적 낙오자나 범법자들의 거주지로 인식되었으며 이로 인해 집단부락의 거주민들은 만주국 사회 내에서 또 다시 철저하게 배제되

18) 李倩, 「淪陷時期日本在吉林建立“集團部落”剖析」, 『東北師大學報』, 제3기, 2006, pp.88-89.

19) “실제 일제가 건설한 집단 부락은 조선인과 항일 부대와의 연계를 단절시켜서 식량과 의복 공급 등을 차단하여 항일 역량을 약하게 할 목적으로 일본 경비대·통신망·자위단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망루·보호벽·철조망으로 구획된 집단 부락 안에 설치된 군경 파출소와 촌공서는 보감연좌법을 실시하고 부락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엄밀하게 감시하였으며 심지어는 출입 및 노동 상황도 감시하였다.” 차희정, 「현경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과 공간의 의미—〈流氓〉, 〈도라오는人生〉, 〈마음의琴線〉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0집, 한중인문학회, 2013, pp.36-37.

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만주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했던 한·중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공간들의 특성과 함께 그들의 직간접적 체험의 기록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작품이 이러한 공간에 대한 묘사를 진행했다는 점은 당시 페스트나 아편 중독과 같은 사건들이 실제로 만주국 사회 내부에서는 상당히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방증한다. 구덩의 경우, 실제로 이웃에서 페스트 환자가 발생하여 가족들과 함께 격리소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고, 만주국의 상황을 시찰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던 현경준은 특별히 조선인들이 머물던 집단부락을 둘러보며 이러한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물론 두 작가들의 작품에서 묘사된 격리소와 집단부락-보도소와 같은 공간이 한편으로는 격리라는 방법을 통해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만주국의 선진적 방역 시스템을 선전하고, 중독자와 범죄자들을 갱생하는 만주국 교도정책을 미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술 속에서 이들은 중국인, 조선인으로서 느꼈던 민족적 차별을 인지하였고, 이는 곧 만주국인 주장했던 ‘민족협화’와 ‘왕도낙토’ 건설의 불확실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사실상 격리소와 집단부락은 만주국 정부의 철저한 기획 하에 형성된 공간으로서 만주국 내에서도 특수한 위치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상술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염병 예방과 중독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이러한 공간은 실질적으로는 대중에 대한 국가 시스템의 통제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여기에서는 페스트 환자와 아편중독자들에 대한 보호와 치료의 목적이 강조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은 이러한 공간을 통해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편입되었고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수동적인 존재로 전락하였다. 무엇보다 격리소나 집단부락의 운용 과정에서 일본은 각 민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였는데 이는 곧 만주국이 제시한 민족 간의 평등과 화합, 왕도의 실현이라는 건국이념과 정신이 지니는 모순성과 균열지점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3. ‘신생’과 ‘갱생’의 공간

격리소와 집단부락과 같은 공간의 기획과 운용은 만주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방증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식민 이데올로기의 확장과 침투의 과정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만주국 정부가 이와 같은 공간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국인과 조

선인과 같은 피식민자들은 지배 권력에 의한 강력한 통제를 받아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는 민족, 계급 간의 차별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간들은 특정 집단에 대한 통제와 치료 혹은 갱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저변에는 이들이 비문명적이고 열등한 대상이라는 의식을 전제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리와 공간 운용은 식민 권력이 이들에 대한 통제를 합리화하고 그 속에 내재한 폭력성을 은폐하고자 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했던 혹은 만주국을 체험했던 한·중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포착할 수 있다. 그동안 구덩의 『신생』과 현경준의 『유맹』은 그 내용이 국책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친일문학이라는 비난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들의 문학을 ‘친일-항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기 보다는 그 서사 속에서 중국인과 조선인의 불평등한 민족적 위치와 식민 이데올로기의 모순이 드러나는 지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위의 두 작품은 격리소와 집단부락 내에 위치한 보도소(輔導所)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형상을 통해 각 개인과 민족이 처한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 이와 같은 특징에 주목하여 본 장에서는 식민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기획된 격리소와 보도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이것이 지니는 공간적 상징성과 이를 바라보는 한·중 작가의 양가적 시선에 대해 고찰한다.

1) 격리소: 균열하는 민족협화의 꿈

구덩의 『신생』은 작가가 1940년에 경험했던 페페스트 상황과 격리소 체험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작품이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구덩이 살던 지역에 페스트 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구덩의 가족을 비롯한 이웃 대다수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격리소에 수용된다. 다양한 민족과 계급이 모여 있던 격리소 생활은 구덩이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특수한 체험이었다. 무엇보다 이 주 동안의 격리소 생활을 하며 구덩이는 수용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고, 그 속에서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하게 된다.

구덩이 격리소 생활에서 체감한 중국인과 일본인의 가장 큰 차이는 이들의 위생관념, 생활습관 그리고 페스트라는 전염병에 대한 인식이었다. 구덩이의 시선 속에서 격리소 병실 서쪽 편에서 생활하는 대다수 중국인들의 모습은 병실 동쪽 편에 자리 잡은 일본인들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이러한 비교 속에서 구덩이가 가장 먼저 발견한 사실은 ‘비문명적’인 중국인들의 모습이었다. 구덩이에게 있어 문명이란 소위 서구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근대화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작품 서두에서 구덩이는 이웃인 천완파(陳萬發)에게 페스트 세균의 위험성과 쥐 박멸에 대

한 중요성을 피력하지만 그는 오히려 “쥐를 함부로 잡으면 집안이 망한다”²⁰⁾는 말로 구덩의 말을 일축한다. 천완파와의 대화 속에서 구덩은 자신과 그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과학적 지식의 간극’이 존재함을 절실히 체감한다. 그러나 실제로 격리소 수용 이후 구덩은 그곳에 모인 대다수 중국인들이 페스트에 대해 천완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에 대해 줄곧 ‘의심’과 ‘불신’의 태도로 일관하며 그저 남겨둔 집과 재산을 걱정하며 하루빨리 격리소에서 출소하기를 학수고대할 뿐이다.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비문명적인 태도는 생활 곳곳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배식 시간에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병실 안에서 각자의 몫을 기다리는 일본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무질서하게 달려들어 자기 몫을 챙기기에 바쁘다. 잠자리나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도 중국인들은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인다. 더러운 신발을 각자의 머리맡에 올려두고 자는 것을 비롯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면대에서 어린 아이의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구덩은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중국인들에 대한 계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지식인이자 문학가로서, 또한 일본과 서구 문명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구덩의 인식 속에서 중국인들의 미개한 모습은 그들이 자신들의 영토를 빼앗기고 피식민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구덩의 이러한 계몽주의 사상이 발현되는 시공간적 배경과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식민 지배 이데올로기의 균열지점에 있다. 우선 구덩이 중국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계몽을 주장하게 된 것은 격리소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 물론 구덩은 그 이전에도 대다수 중국 민중들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페스트라는 위험한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과 격리소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 구덩의 계몽사상은 더욱 강력한 동기와 실현의지를 확보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덩은 같은 공간 속에 격리된 일본인들과의 비교를 통해 중국인들의 단점을 더욱 선명하게 발견한다. 즉, 격리소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구덩은 두 민족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인정하게 되고 이는 곧 ‘문명’과 ‘비문명’의 충돌로 재현된다.

흥미로운 점은 구덩의 계몽사상이 단순히 계몽의 대상의 각성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보다는 이들을 계몽해야 할 지식인들에 대한 엄격한 비판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구덩은 만주국 대다수 지식인들의 “술 마시고, 도박을 하고, 기방에 드나들고, 춤추러 다니고, 아편을 피우고, 경극이나 보러 다니는”²¹⁾ 방탕하고 저

20) 古丁, 『新生』, 範智紅 選編, 『新文藝小說卷(下)』, 廣西教育出版社, 1998, p.732.

21) “只管喝清酒, 打麻將, 嫖美妓, 跳狐步, 吹大煙, 唱京戲……馬馬虎虎生存著(?)的滿洲國的讀書人.” 古丁, 『大作家隨話』, 李春燕 編, 『古丁作品選』, 春風文藝出版社, 1995, p.33.

속한 생활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당시 대중에 대한 계몽의 방법이 지니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내비치기도 한다. 구당은 당시 만주국의 대다수 민중들이 여전히 문맹인 상황에서 지식인들이 그저 “문학을 이야기하며 문학으로 민중에게 위안을 제공하고 그들을 일깨워주자고 하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²²⁾라며 반문한다. 이렇듯 당시 구당이 체험했던 격리소 생활은 이후 그의 문학적 행보나 삶에 태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본래 만주국 통계처 사무관의 직책을 맡고 있던 구당은 격리소 출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문지파(藝文志派) 동인들과 힘을 모아 예문서방(藝文書房)을 여는 등²³⁾ 문학 창작의 활성화와 보급, 문맹퇴치와 계몽 등에 있어 자신의 뜻을 펼치고자 시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격리소 생활이라는 특수한 체험을 바탕으로 구당은 중국인들에 대한 계몽의식을 일깨움과 함께 작품 말미에 가서는 ‘민족협화’의 주장에까지 이르게 된다.²⁴⁾ 하지만 구당이 페스트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족협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상황에서 은연중에 본인 스스로조차도 과연 이러한 민족협화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계몽과 민족협화를 주장하는 구당의 태도에 내재한 이러한 양가적 성격은 격리소라는 특수한 공간이 지니는 폐쇄성과 환상성으로부터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격리소 공간에서 구당의 위치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격리소의 관리자는 모두 일본인들로 이들은 일본어를 통해서만 수용자들과 소통한다. 이들은 일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대다수 중국인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懂得日本語的人)”을 찾는데 바로 이러한 통역,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구당이다. 상술하였다시피 구당은 만주국 통계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자 지식인이었기에 일본어에도 상당히 능통했다. 그는 일본인 의사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웃들(중국인들)에게 전달하며 양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구당의 애매한 위치와 한계를 상징하기도 한다. 즉, 구당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어에 능통하며 국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지만 결국 그의 위치를 확정짓는 것은 ‘민족’이었다. 구당이 격리소에서 출소한 이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구당과 함께 문화회(文化會)²⁵⁾에서

22) “民衆分明都不識字，然而我們卻識得了字，而名曰文學，想要以文學給民衆提供慰安，給予啟示，這究竟有什麼意義呢？”古丁，『新生』，範智紅 選編，『新文藝小說卷(下)』，廣西教育出版社，1998，p.804.

23) 오카다 히데키 저，최정옥 역，『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역락，2008，pp.101-102.

24) 이러한 내용과 『신생』이 대동아문학상을 수상한 사실로 인해 구당은 국책에 동조하고 이를 미화시킨 친일파 작가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였다.

25) 일종의 문화애호자의 모임으로 문예 외에도 영화，연극，미술，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

활동했고 평소에도 친분이 두터웠던 일본인들 중 아무도 격리소 출소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구덩을 도와주거나 위로하는 사람은 없었다. 구덩은 이러한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과 실망을 받았던 것으로 여겨진다.²⁶⁾ 이렇듯 구덩은 줄곧 중국인에 대한 계몽과 일본인과의 민족협화를 외치고 있지만 그 역시 일본인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비문명적인 평범한 중국인에 불과했다.

게다가 격리소는 만주국 정부가 대중에 대한 통제와 감시에 대한 합법적 권한을 확보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를 증명하듯 격리소는 표면적으로는 전염병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공간임을 강조하지만 그 내부에서는 수용자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공포심 조성을 통해 이들의 신체와 정신을 장악하고자 했다. 『신생』의 격리소에서 지배 권력으로 상징되는 인물들은 바로 일본인 의사와 간호사들이다. 이들은 구덩과 그의 이웃들이 격리소에 입소한 첫 날부터 상당히 엄격한 태도로 이들을 통제하고자 한다. 일본인 간호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다른 수용자들 간의 교류를 엄격히 금지하며 혹시라도 페스트 환자 병동 근처에 가게 되면 그 역시 해당 병동으로 이감되거나 영영 격리소에서 나갈 수 없음을 강조하며 이들을 공포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실제로 간호사가 말하는 철저한 격리 생활이 가능했는가. 구덩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비록 내가 위생에 대해 잘 모른다지만 상식적인 판단으로 진정한 격리소라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해도 개인물품을 하나라도 들여오지 못하게 하고, 모두 옷을 다 벗고 소독을 해야 할 터이다. 그리고 나서는 가족끼리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는 격리소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물건을 가져와 함께 부대끼며 생활하고 있으니 이는 오히려 세균만 배양하는 꼴이나 다름없다.²⁷⁾

와 이것을 향유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친목단체였다.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p.39.

26) “古丁이 그러한 불시의 재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古丁도 그 일원인 만주문화회가 그때까지 어느 쪽이었나 하면, 古丁을 추켜세우고 있었음에도 여러 가지 관계에서 급속도로 냉담하게 되어 별도의 의연금도 모아주려고 하지 않았다. 古丁은 불시의 재난이라고 말했지만, 가옥을 잃어버렸던 것 외에도 문화회의 그러한 냉담한 태도에 접하게 되자, 완전히 의기소침해졌고, 당분간 붓을 꺾고 만주문단에서 떠나리라는 결심을 하고, 시골로의 전근운동을 빈번히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p.309에서 재인용

27) “我雖然不懂衛生的事情，按常識去判斷，真正的隔離所，假使是最健康的人，也要一件東西，不許攜入病院以內，脫得赤條條，沐浴消毒，然後一家族一家族，分室居住，而我們現在的隔離，卻是山南的海北的，各處的人攜來各自的東西，住在一齊，培養病菌而已。” 古丁，『新生』，範智紅 選編，『新文藝小說卷(下)』，廣西教育出版社，1998，p.770.

이는 지배 권력으로 상징화 되고 있는 일본인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격리소라는 공간이 지니는 모순성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격리소는 끊임없이 민족 간의 차별과 우열을 재생산하는 공간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민족 간의 차별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지점은 바로 격리소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종류에 있다. 격리소에서 중국인들은 일률적으로 거친 수수밥을 제공받지만 일본인들은 매 끼니마다 하얀 쌀밥을 제공받는다. 구덩과 그의 가족들이 이러한 처우를 받는 것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 여긴 일본인 의사는 구덩을 위로하지만 결국에는 “형평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할 뿐이다. 이러한 차별은 민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들 사이의 갈등과 위계질서를 더욱 심화시킬 뿐이었다. 구덩 역시 이러한 격리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그는 격리소 출소 이후 지인을 통해 당시 자신이 느꼈던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기도 했다.²⁸⁾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본다면 격리소는 페스트라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그저 일반적인 감옥과 같은 억압과 통제의 공간으로 작동한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사실상 구덩은 격리소 생활에 대한 기록에 있어 그 구조상의 문제와 중국인들에 대한 계몽을 주장하는 데에 더욱 치우쳐 있다. 그러나 이 주 동안의 격리소 생활이 끝나고 관청즈(寬城子)에 있는 중간 격리소로 이동하며 구덩의 생각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관청즈에 있는 중간 격리소는 이전의 격리소와는 달리 쾌적한 환경에 민족의 구분 없이 누구나가 똑같은 옷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중간 격리소의 이러한 시스템은 구덩으로 하여금 민족협화의 가능성을 체험하고 또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계기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중간 격리소로 옮겨진다는 것은 생사의 갈림길에 직면해있던 극도의 공포감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이 순간 구덩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은 ‘신생’의 희열을 경험한다. 여기에서 신생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말 그대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됨, 즉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는 구덩 자신이 문학에 대해 지니고 있던 기존의 관념과 식민 지배 권력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²⁹⁾ 이렇듯 중간 격리소라는 공간은 구덩에게 새로운 삶과 민족화합의 가능성을 잠시나마 충족시켜주는 공간으로 작동한다. 또한 민족의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전염될 수 있는 페스트라는 공동의 적(敵)은 오히려 일본과의 적대적인 관계, 민족 간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로도 작동한다.

28) “정말 지독한 꼴을 당했어! 식사는 전부 고량이었어.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것은 먹지도 않아. 아이들은 울면서 밥을 먹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것을 일본인 간호부 ‘각하(閣下)’가 거만하게 뽐내면서 꾸짖었지. 정말이지 생명과 재산을 위협당했다는 그런 느낌이었어.”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p.310에서 재인용.

29) 梅定娥 著, 『妥協與抵抗——古丁的創作與出版活動』, 北方文藝出版社, 2017, pp.118-119.

하지만 여기에서도 이러한 민족협화의 이상을 깨뜨리는 지점이 있었으니 이는 바로 화장실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이 공유되고 평등해보였던 중간 격리소에서 화장실만큼은 여전히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중간 격리소는 중국인과 일본인들을 막론하고 동일한 옷과 음식을 제공하고 모든 시설과 공간을 공유하지만 화장실 문 앞에 적힌 “다른 사람(민족)의 화장실 사용 금지, 어길 시 격리소에서 출소 불가”³⁰⁾라고 적힌 푯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장실 사용에 있어서는 이들의 ‘다름’을 강조했다. 이는 중간 격리소라는 공간 속에서 구덩이 발견했던 민족협화의 가능성이 균열되는 순간이자 식민 이데올로기에 내재한 이중적 성격과 모순성을 극적으로 표출하는 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장아이링(張愛玲)의 소설 『봉쇄(封鎖)』는 당시 일본에게 점령된 상하이에서 ‘봉쇄’라는 특수한 시간적 배경 하에 전차라는 환상적 공간을 보여준다. 그리고 봉쇄의 순간 전차 안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렬한 연애스토리가 전개되지만 봉쇄의 해제와 전차의 움직임과 함께 이는 백일몽과 같이 사라진다. 이처럼 구덩이 경험한 격리소라는 공간은 페스트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불가능했던 민족 간의 결합과 화합의 가능성을 보여주려 했지만 실제로 이러한 화합은 만주국 정부가 제시하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으며 오히려 격리소라는 고립적인 공간은 식민 지배 권력이 자행하는 폭력에 합법성을 부과하는 역설적인 공간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신생』에서 격리소라는 공간이 보여주는 상징성은 단순히 전염병 통제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식민 제국주의 권력의 민낯을 발견할 수 있는 제국의 기획된 공간으로 읽힐 수 있겠다.

2) 보도소: 은폐된 왕도낙토의 허상

현경준의 『유맹』³¹⁾은 조선인들이 모여 사는 집단부락 내 보도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상과 이들의 개인적 갈등을 그려내고 있다. 작가 스스로는 해당 작품에 대해 “한 개의 報告文”³²⁾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곧 당시 그가 보고 들었던 보도소 내의

30) “不許到別人的便所去，否則不日不能出所。”古丁，『新生』，範智紅 選編，『新文藝小說卷(下)』，廣西教育出版社，1998，p.813.

31)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유맹』은 1940년 『인문평론(人文評論)』 7-8월호에 실린 작품으로 이는 1939년 『광업조선(鑛業朝鮮)』에 발표된 『유맹』과는 다른 작품이다. 현경준은 당시 『인문평론』에 ‘현준(玄駿)’이라는 이름으로 해당 소설을 발표하였고, 여기에 실렸던 『유맹』은 이후 『도라오는 人生』, 『마음의 琴線』등으로 개작, 발표되기도 했다. 『유맹』의 개작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의 다음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현경준의 『유맹』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사이(SAI)』, 제4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pp.269-270; 차성연,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pp.440-442 참고.

실제 상황과 집단부락의 풍경을 기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³³⁾ 해방 이후 현경준의 『유맹』은 “만주국의 교도정책에 대한 작가의 긍정적인 시선”³⁴⁾을 지닌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대표적인 친일 소설로 여겨지기도 했다. 물론 이후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유맹』에 내재한 작가의 우회적 저항의 제스처와 새로운 독법의 가능성 등이 제시되며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점은 현경준의 『유맹』이 집단부락-보도소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퇴폐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무기력한 삶을 사는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식민 지배 권력에 담긴 모순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경준은 작품 속에서 보도소라는 공간과 이 곳에서 생활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보도소라는 공간이 상징하고 있는 식민 이데올로기의 허상과 한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유맹』의 첫 장면은 한 여름 더운 날씨에 보도소 소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상부에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그러다 곧 부락민 두 명이 탈출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단장(부락장)과 함께 탈주범들을 추격하지만 끝내 그들을 잡지 못하고, 보도소 소장은 자신의 뜻과 달리 ‘갱생’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부락민들을 보며 깊은 실의에 빠진다. 짧은 장면이지만 여기에서는 보도소라는 공간의 성격이 잘 드러난다. 우선, 보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탈주’를 꿈꾸는 인물들로 그려지는데 이는 곧 보도소라는 공간이 지니는 폐쇄성과 억압성을 드러낸다. 동시에 소장은 보도소의 최고책임자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실 그 역시 한 명의 중간관리자일 뿐 여전히 상부로부터의 평가와 질책을 받는 인물이다. 이는 곧 집단부락의 기획이나 운용이 정부의 철저한 관리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러한 공간을 중심으로 작가는 명우, 규선, 순동 등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고 보도소 생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서술한다. 특히 현경준은 각기 다른 성격의 인물들을 통해 보도소라는 공간이 지니는 복합적 성격을 보여주며 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사실상 『유맹』의 전체적인 줄거리로 보았을 때 보도소라는 공간 자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순동과 명우-규선이 대립하는 구조로 보인다. 그러나 자신의 미래와 갱생에 대한 의지 여부에 있어서는 오히려 명우와 규선이 극명한 대립구도를 이룬다. 비록 명우와 규선 모두 보도소 생활에 대해 그다지

32) 현경준(玄駿), 『流氓』, 『人文評論』, 人文社, 1940.07, p.108.

33) 현경준은 1939년에 발표된 「中毒者の 말」에서 “내가 大梨樹溝란 不正業者 部落을 訪問한 것은 지난 八月 十三日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유맹』이 작가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창작되었음을 의미한다. 현경준, 「中毒者の 말」, 『文章』, 1(10), 文章社, 1939. 11, p.190.

34) 강진호, 「지식인의 자괴감과 문학적 고뇌」, 이근영·김만선·현덕·현경준 저, 『과자상자 外』, 동아출판사, 1995, p.489.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명우는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반면, 규선은 끝내 타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고자 한다. 서로 다른 인물들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그들의 인생철학 속에서 현경준은 과연 이들이 진정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혹은 원했던 ‘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명우는 본래 전도유망한 미술학도였다. 그러나 첫사랑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 때문에 아편중독자가 되어 현재의 보도소로 흘러들어오게 된 인물이다. 명우 역시 보도소 내에서 여전히 몰래 아편을 먹고 부정을 저지르는 자이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부락민들에 대한 보도소 단장의 억압적 태도에는 거침없이 저항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작품 서두에서 탈주범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부락민들에 대한 강압적인 취조와 폭력을 행하는 부락장에 대해 명우는 다음과 같이 저항한다.

부락민에게 함부루 손을 대며, 제자신의 무능과 무식을 폭로시키는 그런 부락장이나 단장이라면, 어서 곱게 손을 씻구 물러앉아라. 우리는 너한테 매 맞을 아무런 의무 두 가진 일 없구, 너에게 그런 권리를 준 일두 없다. 부락장이면 부락장답게, 단장이면 단장답게, 인격적으루 부락민에게 감화를 주며 지도를 해야 한다.³⁵⁾

이와 같은 명우의 말은 부락장 개인의 태도를 나무라는 동시에 보도소라는 공간과 이를 관리하는 모든 권력 계층에 대한 일침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비록 ‘사회적 낙오자’로 분류된 보잘 것 없는 아편중독자이지만 여전히 최소한의 양심과 주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순동의 경우 명우와 달리 완전히 보도소에 동화된 인물로 묘사된다. 그도 그럴 것이 심각한 아편중독자인 순동의 아버지 명보는 아편 때문에 자신의 아내까지 되놈에게 팔아먹고 자식들을 돌보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이다. 그러나 순동은 이러한 아버지를 어떻게든 갱생시키기 위해 스스로 보도소의 보초직까지 자초하며 여동생 순녀와 함께 집단부락으로 들어온 인물이다. 그렇기에 그는 보도소의 시스템을 비롯해 소장이 부락민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무한한 희망과 지지를 보내는 인물이기도 한다. 반면, 규선은 이들과 달리 보도소의 체제를 거부하고 심지어 보도소 내에서 아편밀수를 주도하기까지 한다. 그는 아편밀수를 들켜 보도소를 탈주하다 산 속에서 길을 잃고 그들을 쫓던 추격대에 의해 간신히 목숨을 건진다. 그러나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난 후에도 규선은 아내에게 여전히 자신은 “아무리 해두 제길루 바루 들어설 수는 업”³⁶⁾다는 고백과 함께 구류소

35) 현경준(玄駿), 『流氓』, 『人文評論』, 人文社, 1940.07, p.116. (이하 인용문에서 가독성을 위해 일부 띄어쓰기와 쉼표 표시는 『현경준 작품집』(윤송아 엮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을 참고하였음.)

36) 현경준(玄駿), 『流氓』, 『人文評論』, 人文社, 1940.08, p.170.

로 향한다. 일전에 구류소 생활을 통해 돈독한 사이로 발전한 명우가 그를 회유하려고 하지만 규선은 오히려 명우에게 “개심, 개심 하지만 나한테 그제 제일 문젤세. 자네는 다행히 잃었던 옛 꿈을 다시 찾아서 앞날에 희망을 걸게 되었다지만, 나한테야 뭐가 있단 말인가? 앞날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한 나로서는 결국 과거의 꿈밖에야 회상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³⁷⁾라며 반문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작가는 서로 다른 인물들을 통해 보도소라는 공간이 이들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순동이 보도소의 교화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규선은 이를 완벽하게 거부하는 대립적 성격을 극명하게 드러낼 때 명우는 오히려 그 중간 지점에서 애매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상술하였듯이 명우 역시 보도소의 폐쇄적인 생활에 대해 수궁하는 인물이 아니지만 순녀와의 결혼과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등을 계기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시도’하는 인물로 변모한다. 그러나 『유맹』의 내용으로만 본다면 명우의 이러한 시도가 실제로 성공했는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옛 꿈을 되찾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작가는 명우라는 인물이 본래 지식인이자 전도유망했던 예술가였지만 여전히 아편 중독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그 역시 평범한 인간임을 계속해서 상기시킨다. 이처럼 명우는 보도소가 상징하는 식민 지배 질서에 대해 ‘편입’과 ‘탈주’의 중간지점에서 방황하는 인물로 위치한다.

명우가 보여주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애매함은 한편으로 보도소라는 공간이 지니는 특성과도 연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보도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이는 보도소 소장의 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우리 만주국(滿州國)에서 전만(全滿) 오 개소에다가 이러한 특수부락을 설치한 것은 무슨 까닭인 줄 아시우?

빛두루 인생의 행로에서 탈선하여 나간 여러분을 바른 길로 다시금 인도하여 주려는 것이, 그 제일 본의라는 것은 자초부터 알 수 있는 일이 아니우?

왕도락토(王道樂土)를 건설하려는 만주국이 아니고는 꿈에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마운 혜택을 모르구 여전히 빛두루만 나가려는 여러분을 대할 때 나는 참말 세상사가 슬퍼나서 견딜 수가 없오.³⁸⁾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듯이 보도소는 그곳에 모인 낙오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임무를 수행하고자 한다. 소장은 목청을 높여 만주국이 이들에

37) 현경준(玄駿), 『流氓』, 『人文評論』, 人文社, 1940.08, p.171.

38) 현경준(玄駿), 『流氓』, 『人文評論』, 人文社, 1940.07, p.117.

게 주는 은혜를 강조하며 그들의 갱생을 촉구한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이들의 ‘빚두른’ 인생은 왕도낙토를 실현하고자 하는 만주국의 위대한 국책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들이 변화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변화된 삶이 과연 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보장하는가’에 있다. 보도소에서 그토록 원하는 이들의 갱생은 사실상 지배 권력의 기준에서 바라보는 ‘정도(正道)’를 의미한다. 반면, 보도소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시달려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 오히려 아편은 그러한 고통을 잠시나마 누그러뜨릴 수 있는 참된 위로로까지 여겨진다. 그러기에 이들에게 있어 소장의 상투적인 훈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부락민 병철은 오히려 헛된 일확천금의 꿈을 꾸지 말라는 소장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병철의 반박은 보도소가 상징하는 식민 지배 권력의 폭력적 위계질서와 허상을 신랄하게 꼬집는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업은 전부가 밀수가 아니면 부로카 노릇이었지요. 그 두 대낮에 공공연하게 한 축이랍니다. 멀리를 생각지 마시구 전번에두 목단강(牡丹江)에서 소장님을 찾아왔지만, 그 무슨 회사 사장인지 한 그 양반이 자초에는 무슨 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 쥐였는지 아십니까? 자초에는 도문(圖們) 개척 시에 밀수를 굉장히 해서 돈푼이나 쥐였으니까 아쥬 지금 회사두 그때에 얻은 것으로 된 것임에 틀림없겠지요.³⁹⁾

병철의 말에 소장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는 그저 씩씩거리며 화를 삭힐 뿐이다. 이들의 대화를 통해 현경준은 『유氓』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한다. 소장의 훈계가 증명하듯 집단부락 및 보도소의 설립은 매우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을 통해 만주국 지배 권력이 얻고자 하는 것은 “사회의 밑구렁정은 해매어볼때로 본” 자들을 교화하고 훈련시켜 “다시금 그 밑구렁텅에서 건져내 보려는” 것에 있다. 그렇다면 만주국 정부는 왜 이러한 고생을 감내하는가. 이는 “그들 속에는 기술자도 있고 정치운동자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종교가도 있고 의술가도 있고, 교육자도 있고……지식 정도는 전부가 소학 정도 이상으로서……어학도 국어와 만주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어, 로어, 독일어에까지 능통한……위정당국이 그 인재를 애끼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할 일”⁴⁰⁾이기 때문이다. 결국 만주국은 이러한 쓸모 있는 인재 중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서 바른 국민을 맨들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른 국민’은 “순종하는 신체”가 전

39) 현경준(玄駿), 『流氓』, 『人文評論』, 人文社, 1940.07, p119.

40) 현경준(玄駿), 『流氓』, 『人文評論』, 人文社, 1940.07, pp.123-124.

제되어야 가능했는데 보도소는 바로 이러한 소임을 다하는⁴¹⁾, 즉 만주국 체제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제국의 건민을 양성하는 곳이었다.

이처럼 보도소는 강력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수용자들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한다. 보도소의 수용자 대부분은 외부 사회에서도 이미 낙오자로 낙인찍혀 주변적 존재로 도태된 인물들이며 보도소 내에서도 그저 변화시켜야 할 갱생의 대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러기에 보도소는 이들의 인권과 열악한 생활환경에 대해서는 그저 묵인할 따름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았을 때, 비록 작가가 작품 속에서 일정부분 보도소의 교정방식에 동의한다 했더라도 그 서사 속에는 식민 지배 권력과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이 지니는 모순과 폭력성의 고발이 다분히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유맹』에서 현경준은 규선, 병철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보도소가 추구하는 부정업자들의 갱생이 과연 이들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명우의 주저함에서 볼 수 있듯이 그것이 과연 소장의 말처럼 진정으로 이들의 인생을 위한 것이며 옛 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인지에 대해서는 줄곧 의구심을 표출한다. 무엇보다 보도소라는 공간이 지니는 이와 같은 폐쇄성, 폭력성, 인위성은 그 자체로서 이미 만주국을 왕도가 실현된 ‘왕도낙토’로 바라보던 식민 권력의 유토피아적 상상이 그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4. 맺음말

만주국 시기 한·중 작가의 문학 속에서 그려지는 각종 질병과 사회문제에 대한 서사는 당시 만주국 사회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특별히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만주국 사회가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이를 대처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한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서로 다른 민족 간, 계급 간의 갈등이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만주국 정부는 어떠한 정책들을 실행했는지를 보여준다. 만주국 정부는 다양한 민족들을 포섭하는 새로운 형태의 제국 건설을 위해 ‘오족협화’와 ‘왕도낙토’와 같은 유토피아적 슬로

41) 노상래는 이와 관련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의 논지를 차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순종하는 국민은 ‘순종하는 신체’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즉 ‘복종시킬 수 있고, 쓰임새가 있으며,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는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신체’를 만드는 것이 보도소의 소임이었다. 그리고 순종하는 신체를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에 대한 면밀한 통제와 신체의 복종, 감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규율(discipline)’과 감시에 의해 가능하다.”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70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p.31.

건을 적극적으로 제창했지만 이는 태생 자체가 기형적 성격을 지니는 만주국의 시스템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허상에 불과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구덩의 『신생』과 현경준의 『유맹』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두 작품 속의 주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격리소와 보도소를 중심으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허구성을 고찰하였다. 구덩과 현경준은 해방 이후 만주국 시기의 행적과 창작 활동 등으로 인해 각각 중국과 한국에서 친일작가로 평가받았다. 이는 해방 이후 중국과 국내 학계에서 만주국 시기 문학 연구를 ‘친일-항일’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에서 바라보던 연구 경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이들이 보여준 친일적 행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객관적인 평가와 비판이 이루어져야하겠지만 이들의 문학이 친일문학이었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동안 만주국 시기 문학 연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된 사실에는 다소 아쉬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이들의 작품을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등장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 시각과는 다른 새로운 내용들이 발견, 소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문학 창작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위와 같은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 시각에서 벗어나 각각의 작품 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특수한 ‘공간’에 주목, 이를 통해 당시 만주국을 체험하고 이해했던 두 작가의 복합적인 시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는 기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격리소와 보도소라는 특수한 공간의 특징에 주목하고, 이를 통해 만주국 내 중국인, 조선인들의 민족적 위치가 어떻게 재편성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이 겪었던 불운과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피기 위함에 있었다.

만주국 정부는 격리소와 보도소와 같은 공간을 설계하며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질서 보호를 내세웠지만 그 배후에는 식민 이데올로기의 확장과 강화라는 목적을 수반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전염병과 아편중독자에 대한 보호 및 구호라는 명목 하에 이러한 공간은 중국인과 조선인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감시로 이어졌고, 폐쇄적인 공간적 특성 속에서 제국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폭력성과 각 민족에 대한 차별을 은폐하고자 하였다.

해방 이후 구덩과 현경준은 당시 이들의 작품을 통해 식민 지배 논리를 옹호하고 국책에 동조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이 만주국의 식민 이데올로기를 마냥 찬양하고 긍정하고 있지만은 않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작가가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간에 피식민지배자의 위치에 있던 작가 개인의 신변과 민족적 위치에 있어서 느꼈던 만주국 지배 이

데올로기의 이중성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이처럼 만주국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획된 공간으로서 격리소와 보도소는 당시 만주국 사회가 직면한 각종 위기와 민족갈등의 문제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그 기획 의도나 운용 방식에서 보자면 일본이 제창한 ‘민족협화’와 ‘왕도낙토’라는 만주국의 건국이념과 정신이 실제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허상에 불과했음을 증명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구당의 『신생』과 현경준의 『유맹』은 작품 속 공간이 지니는 특수성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의 해석 가능성을 제시한다. 더불어 이러한 사실들은 향후 당시 만주국에서 활동하거나 만주국을 체험했던 한·중 작가들의 문학서사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민족적 유대관계 혹은 갈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人文評論』, 人文社, 1940.07.

『人文評論』, 人文社, 1940.08.

『文章』, 文章社, 1939.11.

오카다 히데키 저, 최정옥 역, 『문학에서 본 ‘만주국’의 위상』, 역락, 2008.

윤휘탁, 『滿州國: 植民地的 想像이 잉태한 ‘複合民族國家’』, 혜안, 2013.

이근영·김만산·현덕·현경준 저, 『과자상자 外』, 동아출판사, 1995.

프랜싯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나남, 2008.

현경준 지음, 윤송아 엮음, 『현경준 작품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範智紅 選編, 『新文藝小說卷』(下), 廣西教育出版社, 1998.

古 丁 著, 李春燕 編, 『古丁作品選』, 春風文藝出版社, 1995.

梅定娥 著, 『妥協與抵抗——古丁的創作與出版活動』(『偽滿時期文學資料整理與研究』叢書), 北方文藝出版社, 2017.

[日]島村三郎等 著, 公文逸 編, 『我們在滿洲做了什麼: 侵華日本戰犯懺悔錄』, 群眾出版社, 2016.

<논문>

김영문, 「일제 침략 시기 만주 지역 중국 친일문학의 논리구조 - 왕도낙토론(王道樂土論)과 오족협화론(五族協和論)을 중심으로(1931-1945)」, 『중국현대문학』, 제50호,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2009.

노상래, 「헤테로토피아, 제3의 눈으로 읽는 만주 - 현경준의 『유맹』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 제70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 박 강, 「滿州國의 阿片政策」, 『中國學論叢』, 제8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94.
- 박 강, 「滿州國 阿片斷禁政策의 再檢討」, 『역사와 세계(釜大史學)』, 제23집, 효원사학회, 1999.
- 신규환, 「제국의 과학과 동아시아 정치: 1910-11년 만주 페스트의 유행과 방역법규의 제정」, 『동방학지』, 제167집, 국학연구원, 2014.
- 안지나, 「만주국 건국 이데올로기의 균열과 변형 - 민족협화에서 오족협화로, 왕도주의에서 왕도낙토로」, 『만주연구』, 제18집, 만주학회, 2014.
- 이경훈, 「아편의 시대, 아편쟁이의 시대 - 현경준의 『유맹』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사이(SAI)』, 제4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 전경선, 「1933年 滿州國 페스트의 流行과 防疫活動」, 『중국사연구』, 제117집, 중국사학회, 2018.
- _____, 「전시 만주국 체력 동원과 健民의 창출」, 『만주연구』, 제30집, 만주학회, 2020.
- 차광수, 「현경준의 ‘유맹(流氓)’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9호,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5.
- 차성연, 「현경준의 <유맹>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53집, 한국문학회, 2009.
- 차희정, 「현경준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회복과 공간의 의미 - <流氓>, <도라오는人生>, <마음의琴線>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40집, 한중인문학회, 2013.
- 李 磊·班秀麗·聶海洋, 「偽滿時期衛生防疫研究」, 『醫學史研究』, 제37권, 2016.
- 李 倩, 「淪陷時期日本在吉林建立“集團部落”剖析」, 『東北師大學報』, 제3기, 2006.
- 劉全順, 「偽滿鴉片斷禁政策評析」, 『長春師範學院學報』, 제27권 제6기, 2008.
- 張宏藝, 「殖民與疾病——偽滿洲國文學中的“疾病敘事”」,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20.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滿洲國文學, 古丁, 玄卿駿, 『新生』, 『流氓』, 隔離所, 集團部落, 民族協和, 王道樂土				
	영문	Manchurian literature, Gu-ding, Kyung-jun Hyun, <i>New Life</i> , <i>The Displaced</i> , Quarantine center, Group village, National reconciliation, Royal road and paradise				
<div>Control, Treatment, and Designed Space : Symbolism of Space in Novels by Korean and Chinese Writers during the Manchukuo Period</div> <div>Jung, Keo-Yul</div> <div>During the Manchukuo period, Japan colonial government created controlled areas, or spaces, such as quarantine centers and group villages to solve the problems of plague and opium addiction. On the surface, these spaces were designated to quarantine infected or addicts for the safety of the majority, by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nd addictive drugs, but in reality, these places were used to control people with nationalistic ideas and to suppress people.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some social problems of Manchukuo related to epidemics and opium addiction, especially paying attention on how ethnic Chinese and Koreans were reorganized, and further controlled. In particular, this paper examines the illusions and contradictions of the imperialistic colonial ideology inherent within 'quarantine centers' and 'group villages' that appear in the novels of Gu-ding and Hyun, Kyung-jun.</div>						
저 자	정겨울 / 鄭겨울 / Jung, Keo-Yul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1.08.20.	심 사 일	2021.08.26.	게재확정일	2021.09.16.